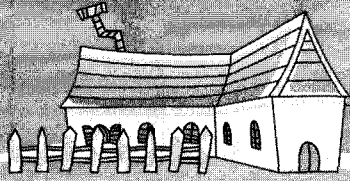


# 목장경영 전문화 과정 유럽연수를 다녀오며...



나현채  
㈜에그리텍이앤씨(E&C) 대표컨설턴트

지난 2010년 12월 4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 J카운터 근처.

협회에서 낙농자조금 사업을 통해 2년째 실시되고 있는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 교육” 사업 중 2010년도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유럽연수” 프로그램에 하나 둘씩 모여드는 시간이었다.

유럽출발을 앞두고, 11월 28일부터 시작된 구제역이라는 악재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업자체를 포기할 것인지 많은 검토들을 하는 상황이었다.

누가 책임을 지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방역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교육효과 업그레이드라는 목적 사이에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매우 철저한 소독 및 방역관리를 전제로 어렵게 출발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모이고 있는 전국 각지(경북제외)의 여성낙농인들의 발걸음도 무겁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었다.

교육과정의 계속된 일정이었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필자가 소지한 아이덴티티 탭(태블릿PC)이나 소형노트북,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인터넷을 연결하여 국내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시간들은 숨을 죽이며 안타깝고 걱정되는 하나된 마음으로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었다.

여성낙농인 목장경영 전문화 교육은 이렇게 어렵게 유럽연수라는 교육의 연



프랑크푸르트 시내



성당에서 국내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를 했다.



독일 지도·프랑크푸르트에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으로

장선을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현지시간으로 12월 4일 저녁 7시쯤(한국시간 12월 5일 새벽 3시쯤) 공항은 유럽추위를 실감토록 할 것처럼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근처 식당에서 간단한 저녁식사를 하고는 주변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도착한 다음날이 일요일이어서 독일에서의 공식적인 교육을 곧장 시작할 수 없어서 일요일은 프랑크푸르트 시내를 잠깐 둘러 볼 계획인 듯 했다.

현지가 일요일이어서 모든 곳이 문을 닫은 관계로 쇼핑이나 관광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잠깐 문화유적지 등을 돌아보고 성당 등을 들른 후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될 독일의 북서쪽 Klevе지역(네덜란드와 인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3시간 반 정도의 예정으로 버스로 이동하였지만, 계속되는 심한 눈보라 때문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휴게소를 들러 70유로센트 비용을 각각 지불하면서 몸을 가볍게 하고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州(Nordrhein-Westfalen)의 시골마을(Kleve)에 숙소를 정하고 이곳에서 2일간의 농업회의소(Landwirtschaftszentrum)에서의 견학 및 교육을 준비하게 된다.



협회 이세연 과장이 연수생들의 소독을 직접하고 있다

시골이어서 그런지 근처 마트에 가려면 호텔에서 택시를 불러야 하고, 마트에서 되돌아 오는 길 역시 마트 안내소에서 택시를 불러달라 요청 한 뒤 20여분을 기다려야, 불러온 택시를 타고 겨우 숙소에 돌아올 수 있었다.

12월 6일 아침 8시 숙소를 출발하면서, 방역관리를 위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오전 9시 농업회의소에 도착한 일행들은 하루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잘 들리지 않는 독일말과 통역되어지는 인솔자의 반복된 강의를 들으며 독일의 농업회의소 역할과 그곳의 컨설턴트들이 낙농과 관련된 컨설팅 하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다. 첫번째 강의는 농업회의소에서 18년정도 근무하고 있다는 Gerhard Hartl(컨설턴트)의 강의였다. 직접 현장에서 목장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어서 생동감 넘치고 현장감 있는 강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00년부터 설치된 농업회의소 회원들은 현재 50,000농장 정도이고, 각 농장은 매년 € 200~800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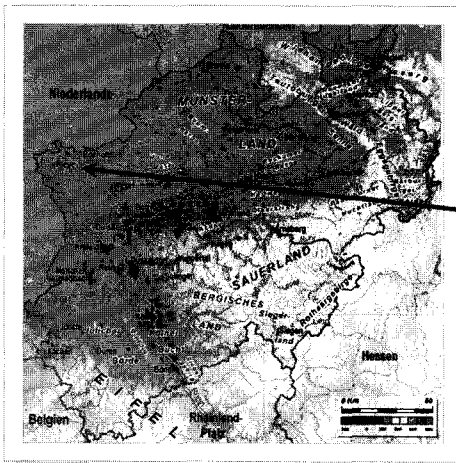
농업회의소는 국가로부터 인정된 공식적인 농민대표기구로서 일종의 공공조직인 듯하다. 자체적으로 대표들을 선출하여 그 소장을 국가기관이 위임하는 형태로 조직이 운영되는 듯하며,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들을 집행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었다.

농업회의소 자체의 고유한 기능 및 역할을 보면, 농촌지도, 상담, 교육, 실습을 위한 교육 및 실습 장소 제공(이곳의 경우 8,800명 실습생 수용 가능)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낙농의 경우 일반농장과 유기농목장도 갖추고 그 각각의 결과들에 대한 면밀한 비교검토와 사업실적 분석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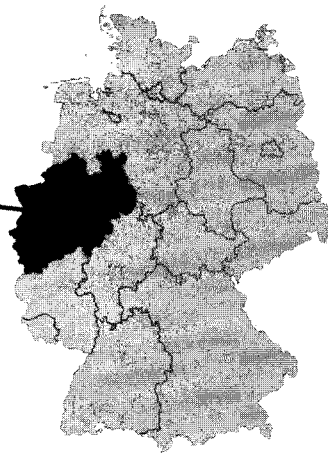
이처럼 행정이나 교육역할 이외에 실질적으로 가장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이들의 역할은 개별농장(목장)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현장과 함께 호흡하고 각 농장들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기록을 보유, 분석, 검토, 활용하고 있었다.

독일의 농업회의소 역시 농업인구 감소와 함께 회의소 직원들 숫자도 점차 감소되고 있는 현실이었다(1994년 2,099명 → 2007년 1,412명 → 2010년 1,200명).

더불어, 16개의 농업회의소 중 2곳만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회



네덜란드와 인접한 Klieve 지역



독일의 북서쪽 Nordrhein-Westfalen

의소의 구조와 모델역할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농업인구나 그 생산액, 또는 축산인구나 축산생산액들의 변화와 함께 흥망성쇠를 함께 하는 것은 세계 어떤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컨설팅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 전반에 걸친 방

대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었고 각 품목별(축종별) 각각 필요 인원들로 구성된 컨설턴트들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일반 밭작물에 5명, 반추가축에 16명, 가금 및 양돈에 5명, 농촌여성관련 2명, 물이나 수질관련 12명 등 실로 많은 인원들이 각각의 전문성에 따라 컨설팅을 한다고 한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여성낙농인들의 축종에 해당되는 낙농 관련된 내용도 세분화해 보면, 사료, 시설, 가축위생, 사료배합, 사양관리, 육종, 경영 등 다양하게 준비하여서 목장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컨설팅은 기본계약(€ 230/월)과 각 항목당 계약(€ 55/시간)과 특별계약(€ 65/시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별계약이란, 처음에 계약한 항목이 아닌 긴급필요에 의한 중간 계약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처럼 농장별 필요한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결정한 후 최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계약해지를 원하면 3개월 전에 서로 통보를 한 후 결정하는 등 매우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였다.

이번 연수의 가장 큰 목적인, 목장 경영분석에 관한 농업회의소의 컨설팅 내용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부기(簿記-bookkeeping)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런 모든 영수증이나 기록들은 10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수익을 나타내는 기본자료인 유대계산서부터 비용에 해당되는 모든 영수증들을 잘 정리하고 보관 해야하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자금 사용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이런 모든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컨설턴트가 진행하고 있었고, 이렇게 분석되고 정리된 자료를 세무사나 회계사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컨설턴트의 임무는 끝나는 것이다. 규모가 큰 농장들은 농장에서 직접 작성(부기)

하기도 하지만, 일반농장들은 대부분 위임형태로 맡겨서 진행하고 있어서, 컨설턴트가 자료를 넘겨주면 된다고 한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진행되는 경영분석 절차들을 소규모 농장들에서도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고방식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현금시제, 대차대조표, 자산, 자본, 부채... 재무재표 등 생소한 듯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단어들 이 자연스럽게 농장과 컨설턴트 사이에 오가는 대화의 주제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다.

이곳의 농장들은 이렇게 분석(경영분석)하여서 자기자본이 € 15,000~18,000 정도 증가되는 것을 평균적인 사업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런 자본 변동사항이나 자기자본 비율의 변화를 토대로 하여 투자를 결정하여 시설에 대한 것이나 기타 규모를 늘리는 일들을 진행하는 등 모든 사항들이 숫자를 기본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규모를 키우려면, 착유우 두수가 늘어나면서 투입된 자본이 몇 년 후에 상환될 것인지 예측한 후에 규모 확대를 결정하고, 착유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혹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언제쯤까지 상환이 가능한지 등 모든 것을 농장의 경영분석을 기초로 투자까지 결정하는 치밀함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지금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정말로 농장에 이익을 주고 있는지 또는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지 모든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초자료가 결국은 우유 1kg당 생산비가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 분석하여 전체 쿼터나 생산량들을 감안하면 결국 농장의 전체 수익이나 전체 비용들이 산출되는 것이다. 이런 자료들을 분석한 후 그 전년도 보다 좋거나 나빠지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번식 때문인지, 사료배합 문제인지, 개량 때문인지 등 농장이 취약한 부분들은 컨설턴트와 계약하거나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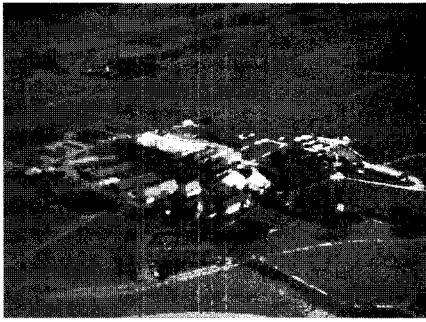
경영을 악화시키거나 개선시키는 부분들의 원인은 기본적인 농장의 생산자료들을 분석하여서 찾고, 또 그 자료를 기본으로 경영분석이 이루어지고, 또 그 경영분석을 기본으로 생산에서의 문제점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결국 농장이 반석 위에 도달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고 정확한 기록을 기초로 하는 것이니, 농장의 성과가 곧 사소한 기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된 것이다. 우리의



컨설턴트



컨설팅 내용 설명



농업회의소 항공사진



건학 前 방역복 착용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누가” 할 것인지는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12월 6일 오후에는 위의 경영분석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양관리 내용을 보게 되었다. 농장의 305일 산유량 목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유성분의 목표, 번식 간격, 초 분만 월령, 수태당 수정횟수, 분만 후 첫 수정일자 목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치들을 공유하고, 질병에 관한 수치들 역시 구체적으로(유열, 케토시스, 유방염, 자궁내막염 등) 현재 상황과 목표를 함께 점검하고 설정하는 것이 컨설팅의 기본처럼 되어 있는 듯했다.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료는 확보할 수 있는지, 배합사료는 준비 되는지, 그렇게 준비하여 급여한 상태에서 소들의 되새김질은 좋은 상태인지, 사료배합에 대한 점검이나 컨설팅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고, 분번상태, BCS등 사양관리 및 기타 모든 컨설팅 내용들이 종합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결과(생산/경영/질병 등)를 지역이나 어떤 단체들과 비교 분석하면서 절대수치와 함께 상대적인 비

교도 병행 하면서 지금 내 목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앞 페이지 사진의 젊은 컨설턴트의 부모님도 제법 큰 규모의 목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부모님 사업이고, 본인은 컨설팅이 직업이고 본인의 역할이라 한다.

이렇게 하루를 보낸 일행들은 벌써 밖이 어두워진 저녁에 수업을 마치고 인근 식당으로 향하여 식사를 하면서 하루의 힘들었던 일정을 정리하였다.

12월 7일(화) 아침도 농업회의소에서 수업으로 시작되었다. 오전에는 농업회의소 일반적인 상황(농업회의소의 기능



농장 간판



사료섭취량 체크 계량장치



건학용 격리된 통로



건학용 통로 내 설치된 시설현황판

및 현황)을 설명 듣고서 곧 농업회의소 견학을 시작하였다. 몹시 습하고 추운날이어서 모두들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이였다. 견학용으로 특별 설계된 시설을 살펴본 후 직접 농장을 살펴보았다.

오후에는 이곳 농업회의소에 서 컨설팅하고 있는 착유우 900여두 농장을 방문하였다. 이 농장은 3명의 대주주들이 합자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11명이 이 농장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농장의 수익은, 축산자재 수익과, 바이오가스, 태양열 등 다변화 되어 있었다. 농장에서 바이오가스(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루에 옥수수 사일리지 9톤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농장도 현재는 규모가 커져서, 미국으로부터 컨설턴트를 불러와 전문적인 컨설팅을 별도로 받고 있다는 웃지 못할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농장자체의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고, 그 개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농장의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 되거나 1주일의 날짜별 시간대별 작업지시서 등이 농장의 일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이처럼 이곳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도 착유우 400두 이상 사육하는 몇몇 농장들은 별도로 모임을 갖고 있었으며, 인력관리와 자본관리에 대한 농장경영의 노하우들을 서로 나누는 듯했다.

이처럼 눈보라와 강추위 속에서 독일에서의 교육을 마쳐가고 있었다.

12월 8일(수) 네덜란드 가우다(Gouda)지역으로 가기 위한 버스가 아침 8시에 숙소에 도착하여 계속해서 내리는 눈 속에 네덜란드로 이동하게 된다.

오전 10시쯤 네덜란드 가우다지역의 “De Twee Hoven” 착유우 및 치즈제조 농장에 도착하여 농장주(부부)의 친절한 설명과 실제 치즈 만드는 현장



농업회의소내 목장



착유우 900두 사육을 자랑하는 한 목장의 축사



바이오가스 배합기 내부



태양열 집전기



독일 교육을 마치고 저녁식사



네덜란드 가우다 지역으로 이동



치즈 제조 과정



치즈 성형 과정



농장 내 제품 판매장

을 볼 수 있었으며, 네덜란드 전국 콘테스트에서 5년 전에 2등을 수상한 내용과, 치즈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유청들을 사료로 급여하기 위해, 돼지도 200여두 사육하면서 농장의 수익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다.

네덜란드 해안 간척지에 위치한 농장으로, 10~40명 정도씩 체험이나 치즈제조 회의, 식사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농장으로 준비 되어 있었고, 제조한 대부분의 치즈는 농장에서 직판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결혼식이나 생일파티, 축제 다른 여러 모임등을 할 수 있는 겸용 회의실이 있어서 지역 내 모임장소로 각광받기도 한다. 오후에는 C.van 't Riet Dairytechnology라는 치즈제조 기구 및 도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매장에 들러 그들이 수작업으로 정성껏 만들어서 전세계에 판매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 저녁늦게 식사를 마친후



농장주 캐리커처



치즈제조 설명



치즈제조 설명

Amsterdam Schiphol 공항 근처의 숙소에 짐을 풀고 쉴 수 있었다.

다음날(12/9) 오전에는 치즈제조훈련 및 교육목장을 운영하는 목장을 찾았다 (Kaasboerderij Zeilzicht) 농장주 발투스(Arie Baltus)와 꼬리(Corrie)는 25년간 이 목장을 운영하며 치즈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은 농장 및 치즈 판매수익 보다, 교육을 통한 수입이 더 크다며 수익의 다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27개국, 4억9천만명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유럽이라는 공동체사회는 지구 상 3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곳 이다.



독일은 철학이나 맥주 등으로 유명한줄 알고 있지만, 이처럼 농업이라는 산업속에서도 그들만의 장점을 살리고 철학을 접목한 듯한 경영관리를 생활 속에 접목해 낙농이라는 축산현장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관리를 하는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그런 계획성 속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여유(?)도 찾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네덜란드는 풍차나 튕립꽃으로 유명한 가운데, 식품 가공이나 화학, 작물 등 농업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많은 벤치마킹을 하는 나라다.

더군다나 낙농에 있어서도 사육규모 등이 비교적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으면서 기술제휴나 업무제휴 등을 많이 하고 있는 낙농선진국이어서, 우유가공에 해당되는 이번 치즈제조 이외에도 사양관리나 컨설팅 등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배우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가일 것이다.

유럽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잘 하고 있고, 부러운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저 감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번 교육이나 견학을 통해서 知彼知己하여 우리 낙농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여러 방법 및 의지들을 다지고 반드시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귀국할 때 독일에서 옮겨타야 하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많은 눈때문에 결항이나 연착이 되어서 네덜란드에서 출발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환자도 발생하여 서로가 마음고생들 많았다. 무엇보다도 국내로부터 구제역 소식들이 끊이지 않아서 가장 힘들었던 연수였던 것 같다.

유럽이 구제역 청정국이기기는 하지만, “혹시라도”라는 염려 때문에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별도의 장소로 격리되어서 또 며칠을 마음졸이며 지내야 했던 모든 연수 동행자들에게 다시 한번 크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음에 격리의 말씀 전하면서 구제역의 아픔이 가시면 또 좋은 만남 있기를 기대한다. ㊦



네덜란드 풍차마을



인천공항에서의 입국 후 소독 현장